

방학중의 영웅적 성격에 대한 탐구*

니수호**

1. 들어가는 말
2. 방학중의 탄생·출세·사망을 둘러싼 이야기들
3. 상황을 뒤집어엎는 방학중
4. 전복주의자 방학중
5. 말장난의 달인 방학중
6. 방학중은 과연 어떤 영웅인가?

<국문초록>

한국 설화에 있어서 방학중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일반적으로 ‘천하잡놈’이라 불리면서 한편 트릭스터로 인정되어 왔다. 힘 있는 자를 속이고 괴롭히므로 ‘서민의 영웅’이라고 할 수도 있을 법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보기엔 석연찮은 면모도 보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방학중이 과연 어떤 영웅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온 영웅이란 뛰어난 능력으로 남을 위해 위대한 행위를 하며 그 행위 때문에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방학중의 탄생에 둘러싼 설화에서 볼 수 있듯이 방학중이 비범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음에 틀림없으나 과연 영웅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적합한지는 다른 설화를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상전을 속이는 설화를 보면 얼핏 낮은 자가 높은 자를 깎아내리는 이야기 같지만 장님이나 절름발이처럼 불쌍한 사람까지 속여서 죽게까지 하는 장면도 나온다. 떡보리와 관련된 설화에서는 방학중이 죄 없는 아기를

* 이 연구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 바탕한 것이다.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 방학중·정만서·김선달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조교수.

위험에 빠뜨리고 아무런 적대심이 없는 행인을 망하게 한다. 그리고 말장난과 관련된 설화에서는 자신의 말을 상대방이 오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상대방의 말을 일부러 오해함으로써 상대방을 희롱하거나 난장판을 만든다. 이 모든 행위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방학중의 경계적인 성격이다. 그는 사회적인 관습이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구조를 공격하는 인물이다.

영웅이란 사회구조를 옹호하는 자이기 때문에 방학중은 전통적인 영웅과 거리가 멀다. 대신에 노스롭 프라이 등과 같은 학자들이 논한 '반영웅'이라는 명칭이 적합하다. 영웅과 달리 반영웅은 사회구조의 허점을 노리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 경계에 서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사회질서 이외의 가능성을 볼 수 있으며 사회구조를 공격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방학중과 같은 반영웅이 다시 나타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핵심어: 방학중, 영웅, 반영웅, 경계성, 트릭스터

1. 들어가는 말

방학중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모르는 이가 없는 난봉꾼이기에 일반적으로 '천하잡보'라고 하기도 하고, 놀고먹는 사람이기에 학자들이 '건달형 인물'이라고 규정하기도 하며,¹⁾ 또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속이고 자기 똥과 자기 똥이 아닌 것까지를 챙기기에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인물원형인 트릭스터(trickster)라고 부를 수도 있다.²⁾ 특히 방학중에게 경계성이란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기에 트릭스터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³⁾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방학중을 '서민의 영웅' 혹은 '민중의 영웅'이라고

1) 예컨대 건달형 인물로 방학중을 다룬 논문으로 다음이 대표적이다.

崔元植, 『鳳伊型 건달의 文學史的 意義 - 피카레스크의 可能性』, 『李朝後期 漢文學의 再照明』, 창작과 비평사, 1983.

김현선, 『건달형 인물이야기의 존재 양상과 의미』, 『京畿語文學』 8, 1990.

임재해, 『건달형 인물전설의 어긋난 행위에 갈무리된 근대성 읽기』, 『韓民族語文學』 53, 2008.

2) 曹喜雄, 『트릭스터(Trickster) 譚 研究』, 『語文學論叢』 6, 國民大語文學研究所, 1987, 89면.

명명하기도 한다. 힘 있는 자를 속이고 끌리고 괴롭히는 행위를 통해 힘없고 억압받는 서민의 갈망을 표출한다는 의미에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방학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는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영웅’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방학중이 과연 어떤 영웅인지 충분히 살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英雄’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뛰어난 남자’라고 할 수 있다. 사전에 나오는 정의에 따르면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의 뜻을 풀어서 설명한 것으로 무엇인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든다. 여기서 잠깐 영어 단어인 ‘hero’를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단어도 사전적 의미는 한국어와 비슷하지만 그 어원을 살펴보면 인도 게르만 공통 조어(Proto-Indo-European language) ‘ser’는 ‘보살피다’ 혹은 ‘보호하다’라는 뜻이라고 한다.⁴⁾ 즉, ‘hero’는 단순히 뛰어난 남자라든가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해 행동하는 인물이라는 뜻이 된다. 그리스 문명권에서는 영웅(ήρωας)이란 원래 아킬레우스나 페르세우스와 같이 신과 인간의 자식으로서 불멸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디세우스와 같은 인간도 초인간적인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집단을 위해 싸우고 다른 인간들을 도와주고 구해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사후에는 신과 함께 신화의 주인공이 되어 지금까지 전승되어 왔다.⁵⁾ 이렇게 영웅의 의미는 이타적인 행동과 비범한 능력이라는 측면이 강조된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서대석도 군담소설과 영웅소설을 구별하면서 이 점을 강조했는데, “영웅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서 집단의 삶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수행하고 그 때문에 집단의 존경을 받는 존재”라고 정의했다.⁶⁾

3) 경계성에 대해서 나수호, 앞의 논문, 23~31면 참조. 뒤에서 방학중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설화를 보면서 그의 경계성을 보다 자세히 보도록 한다.

4) “hero.” Douglas Harper, *Online Etymology Dictionary*, 11 October 2013.

<<http://www.etymonline.com/index.php?term=hero>>

5) “Heros (ήρωας).” Harry Thurston Peck, *Harpers Dictionary of Classical Antiquitie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898.

6)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13면.

그러므로 영웅이란 세 가지의 필수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는, 인물의 기본자질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과 용맹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는, 인물의 행위에 있어서 남을 위해 위대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로는, 인물에 대한 사회의 평가에 있어서 남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방학중의 영웅적인 성격에 대하여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예를 들면 조동일은 방학중을 일컬어 “영웅을 반대로 뒤집어놓은 영웅”, 즉 “과괴의 영웅”이라고 했다. 이어서 “영웅은 위대하겠지만, 방학중이는 왜소하다. 영웅은 승양을 받겠지만, 방학중이는 ‘어정스러운 놈’이다. 영웅은 시련에 부딪쳐서 비장한 투쟁을 하겠지만, 방학중이는 시련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언제나 골계적인 행동만 한다.”라고 지적했다.⁷⁾ 또한 최근에는 임재해가 방학중을 포함한 ‘건달형 인물’에 대하여 고대 신화적 영웅, 중세 역사적 영웅의 뒤를 이은 “근대의 변혁적 영웅”이라고 표현했다.⁸⁾ 이같이 방학중은 분명히 영웅으로 인식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영웅은 아니다. 먼저 방학중을 비범한 인물로 보는 설화 몇 편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방학중이 등장하는 설화를 살펴면서 그가 어떠한 영웅적인 성격을 지니는지 자세하게 밝히고자 한다.⁹⁾

2. 방학중의 탄생·출세·사망을 둘러싼 이야기들

래클랜 경(Fitzroy Richard Somerset IV Baron Raglan)은 <영웅>이라는 영향력이 있는 저서에서 영웅의 일대기에 대해서 논한 바 있다.¹⁰⁾ 그는 영웅의 소위 ‘포장된 일대기(potted biography)’를 “그의 잉태의 정황은 특이하다”,

7) 趙東一, 『人物傳說의 意味와 機能』,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9, 293면.

8) 임재해, 앞의 논문, 259면.

9) 방학중 설화 자료는 다음과 같은 자료집에서 가져온다. 각주에서 전자는 『구전』이라고 표현하고 후자는 『대계』라고 표현하겠다.

임석재, 『한국구전설화』(전12권), 평민사, 1987~1993.

『한국구비문학대계』(전82권), 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0) Lord Raglan, *The Hero: A Study in Tradition, Myth, and Drama*, Pitman Publishing, Ltd., 1936, pp.173-204.

혹은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이 없다”와 같은 22가지의 항목으로 정리했다. 이 항목들은 영웅의 탄생, 영웅의 행적, 영웅의 죽음이라는 세 가지의 시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세 가지 중요한 통과의례(탄생의례, 입사의례, 장례)에 해당된다고 했다. 물론 “신의 아들이라는 평판이 있다”는 항목이나 “신들이나 백성의 호의를 잃는다”와 같은 항목을 보면 주로 신화적인 영웅에 해당되는 패턴이지만 래글랜은 로빈 후드와 같은 非신화적인 인물에 적용하기도 했다. 그는 영웅에 대해 영어로 ‘mythical hero’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비신화적 인물까지도 거론한 것을 보아 문맥상 ‘신화적인 영웅’이라기 보다는 ‘허구적인 영웅’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아무튼 래글랜의 패턴을 고수하지 않더라도 신화적인 영웅이든 전설적·민담적인 영웅이든 일반적으로 영웅이란 비범한 탄생·행적·죽음을 지니는 인물로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

방학중에게 있어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기꾼인 김선달이나 방학중과 마찬가지로 경상북도 출신인 건달형 인물 정만서와 달리, 그의 비범한 탄생을 증명하려는 출생담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¹¹⁾ 먼저 방학중이 태어났을 때에 공중에서 난데없는 소리가 났다는 설화를 보자.

방학중이가 참 날 때에 어예 났나 하면. 시간은 옳게 타고 났는데, 부모가 잘못해가주 그래 뻘단 말이여.

아가 땅에 떡 떨어지이, 공중에서 아가 났나 안났나 묻그던. 이놈 공중에서 난데없는 소가(소리가) 아가 났다고 소리가 나이 “안났읍니다” 쟤다. 글 때만 났다 쟤으면 큰 사람 될건데 거 인제 아하. 거 아 날 시간이 뻘는데, 이거 두 번째 물어도 났다 쟤으면 되는데, 두 번째도 “안났다고 안났다”카고 그래 또 “아하 참, 곧 시간이 바쁘다”카고 조금 있다 또 와 묻는데, 그 때도 안 났다 칸다. 났다 카면 머 탈나까바. 그럼 그래 가 안났다 카이, 아 그인지는 머 참 누말 마따나(누구 말처럼) 천하잡보밖에는 안된다. 천하잡보밖에는 안되고 그렇다 이래. 그래가 이 양반이 참 잡보질이나 하고 멍기는데....¹²⁾

11) 나수호, 앞의 논문, 171~173면.

다른 이야기에서는 방학중이 태어났을 때에 이웃 여자가 악담을 했기 때문에 대인이 될 방학중이 결국 “천하 잡놈 지하 잡놈”이 되었다고 한다.¹²⁾ 방학중이 원래 큰 인물이 될 운명이었다는 주장은 다음의 이야기에서도 나온다.

학중영감의 모친이 학중영감 태상(태생)할 직에, 이 이룻개가 한 열 바리(마리)쯤 마다아(마당에) 싹 들오드라누만. 드가는데, 확 비켜가 드가는데, 태새(태생)이 아들이라. 그래서 사람이 이상이(이상하니), “야가 내재(나중에) 앞으로 큰 사람이 되리라.” 이래 지킨다(지킬인다).

그런데 큰 사람은 되지 못했지마는 참, 그 때 조선에 팔도라. 팔도에 들어 땡기며 참 좋은 일도 물론 많이 했지마는, 이 어른이 많이 했는게라.¹⁴⁾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방학중 설화 중에 소수에 불과하며¹⁵⁾ 잘 알려진 이야기도 아닌 듯하다.¹⁶⁾ 그러나 채록 당시에 방학중이 영웅이 될 만했던 인물로 인식하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학중의 탄생>에서는 이웃 여자 하나 때문에 그의 영웅적인 운명이 뒤틀렸다고 했고, <방학중의 출생담과 가계>에서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될 인물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채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도 많이 했다는 주장도 한다. 방학중에 대한 이런 견해는 대부분의 방학중 설화와 비교해 인물의 일반적 행적이나 성격에 어긋나기 때문에 구연자들도 이렇게 영웅이 될 만한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중을 단순한 건달이나 잡보가 아닌 영웅적인 세계관으로 이해해야 할 인물로 묘사하고

12) <방학중이 탄생과 행적>(『대계』 7-6, 318면).

13) <방학중의 탄생>(『대계』 7-7, 374~375면).

14) <방학중의 출생담과 가계>(『대계』 7-7, 538면).

15) 『한국구전설화』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방학중 설화를 대상으로 삽화를 분류한 결과 총 154개 삽화 중에서 방학중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언급된 3편뿐이다. 나수호, 앞의 논문, 32~36면.

16) <방학중의 탄생>의 경우에는 조사자가 설화를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는 좌중에 생소한 이야기인 것 같았다”는 언급을 덧붙였다.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다시 레글랜의 22가지 항목을 보면 마지막 항목은 “성묘(聖墓; holy sepulchre)가 최소한 하나 이상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방학중에게 성묘는 없지만 그의 무덤에 대한 언급은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방학중의 출생담과 가계>에서는 구연자가 방학중의 산소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또한 방학중의 유언에 대한 짧은 이야기인 <방학중의 유언과 묘지>에 의하면 방학중이 “나는 세사아(세상에) 났다가 아무 한 짓도 없고 이리이까네, 단지 무덤을 어디서 제리(제일) 좋아하노 카만, 어디 그저 만 인간이 지내댕기는 거리에 말이지, 바다를 화- 내비면서도……”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¹⁷⁾ 여기서도 역시 기대치 못한 말이 나온다. 무덤은 원래 산에 조성하는데 일부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뒹자리를 잡아달라고 한 것은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 말인데 자신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기를 소망한 것이 아닌가 상상해볼 수도 있겠다.¹⁸⁾ 마치 어느 영웅처럼 말이다.

위에서 짧게 살펴보았던 이야기들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표적인 방학중 설화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방학중이 비범한 인물이었다는 인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더라도 방학중을 흔히 ‘천하 잡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잡보’라는 것은 아주 천한 것이지만 ‘천하라는 수식어가 붙여졌다는 점은 그의 비범함을 보여준다. 방학중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려면 그에 대한 설화에 나타나는 그의 행적을 보면 된다.

17) <방학중의 유언과 묘지>(『대계』 7-7, 548면).

18)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있는 무덤 또한 그리스 신인 헤르메스를 연상시킨다. ‘헤르메스(Ερμής)’라는 이름의 어원이 ‘헤르마(ἕρμα)’인데 이는 ‘돌더미’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아무 돌더미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경계표지로 사용된 돌더미를 의미한다. 헤르메스가 경계와 이행의 신이었던 만큼 이런 경계표지와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Norman Brown, *Hermes the Thief*, Lindisfame Press, 1990, pp.32-45) 방학중도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활약한 인물이므로 사람의 왕래가 잦은 길가에 무덤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3. 상황을 뒤집어엮는 방학중

방학중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하인으로서 상전을 속이는 이야기가 유명하다. 물론 이 설화 유형은 ‘앙글장글’이나 ‘막동이’와 같은 인물, 혹은 이름 없는 하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방학중이 등장하는 경우도 많다.¹⁹⁾ 엄밀히 따지면 다른 설화와 달리 방학중 이외에 다른 인물도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학중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학중 설화의 삽화 중에 상당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²⁰⁾ 방학중 이야기의 향유층 가운데 이 이야기가 방학중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설화라고 생각하는 이야기꾼도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이 방학중의 영웅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며 ‘상전을 속이는 하인’이라는 유형이 영웅의 모습을 일면 보여 주는 것이라 여겨질 수 있는 만큼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먼저 줄거리를 간략히 소개하겠다. 이 이야기는 방학중이 상전과 동행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설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가는 길에 상전이 죽이나 술을 사오라고 시키는데 그것을 가져오면서 콧물이나 이를 빠뜨린 척을 하여 상전이 역겨워하며 먹지 않으면 방학중이 차지한다. 서울에 도착한 후 상전이 일을 보는 동안 말을 방학중에게 맡기면서 “서울 사람들은 생눈을 빼먹는다”며 서울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주의시키니 방학중은 상전이 가고 난 후 말을 팔아 버리고 고삐만 남긴다. 상전이 돌아와서 어찌 된 일인지 물으니 눈알을 빼앗길까봐서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훔쳐간 것 같다고 우긴다. 방학중에게 꿀탕을 먹다 못해 상전이 방학중의 등에다가 그를 죽이라는 지시를 써서 집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나 방학중은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행인에게 부탁하여 막내딸과 결혼시키라는 내용으로 고치고, 상전의 가족들이 의아해하기는 하지만 결국 상전의 막내딸과 결혼까지 한

19) 『구전』 : 12, 45~48면; 『대계』 : 2-3, 133~138면; 7-6, 420~424면; 7-7, 64면; 7-9, 887~892면; 7-10, 38~40면; 7-10, 41~43면; 7-10, 43~45면.

20) 『한국구전설화』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방학중 설화를 대상으로 삽화를 분류한 결과 총 154개 삽화 중에서 18.8%인 29개 삽화가 상전을 속인 하인 이야기 범주에 속한다. 나수호, 앞의 논문, 32~36면.

다. 나중에 집에 돌아온 상전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방학중을 포대에 넣어 강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지만 역시 이 위기에서도 방학중은 유유히 벗어난다. 방학중을 메고 강으로 가던 하인들이 방학중이 든 포대를 나무에 걸어놓고 주막에 들어간 사이에 방학중은 지나가는 행인을 속여서 자기 대신 포대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의 결말은 각편마다 차이가 있는데 상전과 화해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복수로 상전을 죽게 하는 이야기도 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에 이 이야기는 사회적 갈등 구조가 매우 뚜렷하다. 하층민인 방학중이 지배계층을 상징하는 상전을 속여서 이기는 것이다. 방학중은 차근차근 상전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린다. 먼저 상전이 먹어야 할 음식과 술을 차지한다. 물론 상전이 굶게 되는 것도 굴욕스럽지만 방학중의 행위에는 보다 깊은 뜻이 깔려 있다. 하인이란 원래 상전의 명령대로 따라야 하는 존재지만 방학중은 기존의 권력 구조를 전복시키면서 진정한 힘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상전은 굶거나 아니면 서민처럼 말에서 내려 자신이 먹을 것을 스스로 사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상전의 신분을 상징하는 말도 빼앗는다. 여러모로 상전을 깎아내리는 행위이다. 우선 편히 타고 돌아다닐 말이 없어졌으니 기동력을 잃게 된다. 또한 말을 타면 남을 내려다 볼 수 있는데 걸어가야 하면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된다. 물론 방학중이 아직은 권력구조를 완전히 뒤집을 수 없기에 말을 차지할 수는 없지만 그 대신 돈을 챙긴다. 상전의 손해가 방학중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통해 상전의 막내딸을 빼앗는다. 물론 양반의 딸이 하인과 결혼하는 것은 비할 데 없는 굴욕이다. 게다가 양반에게 결혼이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소한 집안의 지위와 걸맞은 집안과 혼인을 시켜야 하고 혹은 더 나은 집안으로 딸을 시집보내 지위 상승을 꾀하는 것이 상례다. 따라서 방학중의 혼인은 상전의 딸을 빼앗은 것일 뿐 아니라 상전의 집안의 사회적 지위까지도 깎아내리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어떤 각편에서는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상전을 온 식구와 함께 물에 빠져 죽게 한다. 물론 여기서 막내딸은 제외된다.

위와 같은 방학중의 행위를 고려하면 그를 상층을 상대해서 이기는 서민의 화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방학중의 행적의 일부에 불과하다. 상전을 굶려먹는 설화에 상전이 등장하지 않는 삽화도 있는데 바로 포대에서 벗어나는 삽화이다. 물론 상전의 대리가 되는 하인들이 있지만 방학중의 속임수의 표적은 이들이 아니다. 이 삽화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 비슷한 이야기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사실 이 삽화는 한국 밖에도 널리 분포되어 있는 유형이다. 캐나다 퀘벡과 뉴브런즈윅, 그리고 미국 메인 주에 거주하는 말리시트(Maliseet) 부족의 이야기 중에 폴치츠(Polci'tc)라는 트릭스터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폴치츠는 왕을 속여서 결국 왕으로 하여금 스스로 왕비를 죽이게 한다. 왕은 자신을 속인 폴치츠에게 크게 노하여 그를 죽이기로 한다.

왕은 폴치츠를 자루에 넣어 급류에 던지라고 명했다. 마부는 폴포츠를 폭포 위로 데리고 갔는데, 도중에 술을 마시려고 주막에 들어가면서 자루에 든 폴치츠를 마차에 두고 갔다. 그 사이에 한 농부가 멋진 소떼를 몰고 지나가고 있었다. 폴치츠는 노래를 불렀다. “자루 속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소?” 폴치츠는 “오, 나는 천국으로, 오늘 천국으로 간다네.”하고 노래를 했다. “와, 나도 그곳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갑니까?” 폴치츠는 “이 자루 속에서 그곳에 갈 거요.”라고 했다. 농부는 폴치츠에게 자신과 자리를 바꾸자고 하면서 그 대가로 소떼를 주겠다고 했다. 폴치츠는 그러겠다고 해서 농부 덕분에 풀려나고 농부를 자기 대신 자루에 넣고 소떼를 몰고 느릿느릿 걸어갔다. 마부가 나와 그 자루를 들고 물가로 가져와 “잘 가라, 폴치츠.”라고 말했다. 자루 속에 있는 남자가 “난 폴치츠가 아니야!”라고 소리치자, “맞아, 넌 폴치츠야!”라고 했다. 풍덩!²¹⁾

채록자는 위 이야기를 ‘유럽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일단 ‘폴치츠’라는 이름이 ‘작은 폴(Little Paul)’이라는 뜻을 지니는 데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

21) Frank G. Speck, “Malecite Tale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30(118), 1917, pp. 484-485.

다. 또한 왕이라는 존재가 없는 북미 원주민의 이야기에 왕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이 이야기가 유럽에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 유형은 유럽과 북미주에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필리핀에서도 발견되는데 포송(Posong)이라는 술루(Sulu) 섬의 트릭스터가 주인공이다. 포송이 술탄의 왕비 7명과 동침하여 술탄의 분노를 사고 벌거벗은 채로 통발에 갇힌다. 통발이 너무 튼튼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부 고아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멋진 옷을 입고 금으로 만든 칼을 옆구리에 차고 금으로 장식한 말안장 위에 앉아 있는 그 고아가 포송을 보고(물론 한눈에 알아본 것이다) 왜 통발에 들어가 있냐고 물어본다. 포송이 통발 안에 있으면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으며 자기 부모도 볼 수 있다고 대답하니 고아가 옷을 벗고 통발에 들어간다. 포송은 고아의 옷을 입고 고아의 말을 타고 도망간다.²²⁾

위에서 언급한 두 편의 이야기는 방학중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와 같은 유형이다. 방학중이 포대에서 벗어난 후에 상전에게 돌아가서 물속에서 놀라운 세계를 보았다고 속여 물에 빠져 죽게 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내용 역시 말리시트 이야기와 술루 섬 이야기에 나온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와 방학중의 이야기에는 차이점도 있다. 먼저 상전과 하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도 적대자가 지배계층의 꼭대기에 있는 왕이고 주인공이 그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맥락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적대자의 막내딸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부인을 빼앗은 것(실제로 죽게 해서 빼앗든 동침을 통해 상징적으로만 빼앗든)이기는 하지만 이 점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것보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다음의 인용문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술 마시는 새(사이) 사기재이(옹구장사)가 사기를 한 짐 짊어지고 짤록 짤록 절고 오그던. 절고(절록거리고) 오이께네 이눔우 이걸 탕대 속에 들어 앉아 [큰 소리로] “나간다 드간다” 하면서 주척거래. 이 가만 지내보이
 “이거 멀 그 나간다 드간다 카노?”

22) H. Arlo Nimmo, “Posong, Trickster of Sulu,” *Western Folklore* 29(3), 1970, pp. 188-189.

“흐, 여보시오. 날 좀 벗겨 달라고. 내가 저 당신네처럼 다리를 저만치 절었는데, 이 망태 들어서여(들어가서) 몇 번 안그래면 다리 고친다고 다리 곤치... 그마 된다고.”

아 이눔우 벗겨 줘나디. 나와가주고 거다 흘치가주 달아놓고 그마 사기집을 짚어지고 달아난다.²³⁾

방학중을 망태에 넣어서 물에 빠뜨리라는 상전의 명령을 받고 강으로 가던 하인들이 주막에 들르려고 그 망태를 나무에 매달아놓은 후에 벌어지는 장면이다. 방학중은 위와 같이 지나가는 절름발이 옹기장수를 속여서 위기에서 벗어난다. 앞에서 본 북미원주민 이야기나 필리핀 이야기와 다른 점은 바로 속임수의 표적에 있다. 세 편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표적은 권력을 지니는 인물이 아니지만 말리시트족의 농부는 '멋진 소떼'를 몰고 있으므로 부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술루 섬의 고아는 금으로 만든 칼을 차고 금 안장으로 장식한 말을 타고 있으므로 영락없는 부자이다. 그러나 방학중이 속인 자는 평범한 옹기장수에다가 절름발이다. 다른 각편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장님,²⁴⁾ 절름발이 포수,²⁵⁾ 신경통을 호소하는 등짐장수²⁶⁾ 등이 등장하기도 한다. 물론 다른 지역에 분포된 설화를 봐도 위의 외국 설화 두 편에서처럼 표적이 항상 부자인 것은 아니다. 미국의 동남부에 거주하는 크리크족(Creek) 설화 중에 남자 아이를 속인 이야기²⁷⁾ 그렇고 프랑스계 캐나다 백인들에게 전승되는 설화 중 '가난한 자(un pauvre)'가 트릭스터와 자리를 바꾸는 이야기²⁸⁾가 그러한 예가 된다. 그래도 방학중의 표적처럼 불쌍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들 표적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갈망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다.

23) 『대계』 7-6, 423면.

24) 『구전』 12, 45~48면.

25) 『대계』 7-9, 887~892면.

26) 『대계』 7-10, 41~43면.

27) Richard Erdoes and Alfonso Ortiz, *American Indian Trickster Tales*, Penguin Books, 1998, pp. 178-179.

28) C. Marius Barbeau, 'Le Conte de Pois-Verts,' "Contes Populaires Canadien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29(111), 1916, pp. 99-102.

부농은 천국에 가고 싶고, 고아는 죽은 부모를 보고 싶고, 남자 아이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싶고, 가난한 자는 공주와 동침하고 싶고, 그리고 방학중의 표적들은 신체장애가 낫기를 원한다. 속임수의 원리 즉, 무엇을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면 황당한 속임수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은 모든 이야기에서 같다. 그런데 방학중이 가장 불쌍한 사람을 표적으로 고른 까닭은 무엇일까? 주막이 있는 길이라면 행인이 많다는 뜻인데 지나가는 양반이나 부자를 속이면 되지 왜 하필 장애인을 속이기로 작정한 것일까?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표적이 가장 쉽게 속임수에 넘어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서민의 영웅이라면 그럴 수가 없을 텐데 서슴없이 표적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은 유유히 빠져나간다. 그렇다고 해서 방학중을 유독이 잔인한 자라고만도 할 수 없는 것이 장애인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어떤 증오감이나 잔혹함 때문이 아니라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률이 높은 전략이기 때문이다. 방학중이 하층민의 화신이라는 시각에서 이런 설화를 접근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방학중이 하층민이면서도 경계적인 인물이라는 시각을 취하면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다시 말해서 방학중은 사회적 관습과 범주의 경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빈부귀천 등과 같은 구분에 얽매이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방학중의 이런 성격을 잘 드러내는 다른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전복주의자 방학중

방학중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가장 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떡보리를 훔치는 설화이다. 이는 위에서 본 상전을 굶려먹는 설화 중간에 일종의 막간 삽화로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상전과의 대결과 별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며 대체로 개별 삽화로 전해진다.²⁹⁾ 다음에서 볼 설화는³⁰⁾ 주인공을 “天

29) 소위 '막간 삽화'는 『구전』: 12, 45~48면; 『대계』: 7-6, 420~424면; 7-10, 43~45면. 개별 삽화는 『구전』 12, 49~50면; 『대계』 7-7, 40~43면; 7-7, 422~427면; 7-7, 534~535면; 7-7,

下잡놈 方학준”으로 소개하면서 “本籍의 저어 盈德이라는디 이 건달이 四方으로 돌아댁기서 커뇌서 지 멋대로 살었다”고 한다. 이 설화에서는 방학준이 떠거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는 상전으로부터 떠난 후에 어떤 여자를 만난다.

한 집이서는 이른 떡보리방애로 찌고 있었다. 어떤 여자가 열라로 엮고 혼자 방아를 찧고 있어서 떠거리는 女子한티 가서 혼자 열라로 엮고 방아 찧느라고 애 썬다. 내가 열라로 봐줌서 보리를 잘 우게 주마꼬 함서 열라로 안고 보리방아를 우겨줬다. 여자는 이런 고마운 사램이 어디 있나꼬 고마워했다. 떡거리는 방아로 한참 우겨주어 보리떡을 푼똥 움켜주어 각고 방아 학 속에 있는 보리떡을 꺼내고 그 안에다 열라는 집어 넣고 보리떡을 들고 달아났다. 女子는 디디던 방아를 놓을 수 없고 아이고 저넘 아이고 저넘 캄서 콧만 치고 있었다.

여자를 도와준다면 접근을 하고서는 결국엔 떡보리를 훔치기 위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만다. 먹을 것을 차지하기 위해 죄 없는 어린아이를 위협하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악한이 아닌가? 그러나 방학중의 경계적인 관점에서 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 역시 냉정한 계산에서 나온 행위이다. 즉, 엄마가 떡보리보다 그 자식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리라는 계산일뿐이다. 기대했던 대로 방학중이 도망가는 동안 여자는 통곡하면서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이 이야기에서 방학중은 굶어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영웅의 면모라고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방학중은 이어서 부당히 얻은 떡보리를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떡어리는 한참 도망쳐서 女子가 안 뵈일 디뎌 왔다. 그리서 저쪽에 꿀장시가지 지내가는 거로 봐고 열른 보리떡으로 되말을 만들어 꿀장시 옆으로 가서 여보이소 꿀 자시 꿀 삼시다. 그 꿀 내 말에 부어 보소 겠다. 꿀장시는 꿀을

591~592면; 7-9, 1077~1080면.

30) 『구전』 12, 45~48면.

부으이 이거 얼마요 쟤다. 얼마요 카이 얼마라 쟤다. 그거 비싸 몬 사겠소 도로 부으소 안 사겠노 감서 도로 부어쥘다. 그런데 떠거리가 만든 말에는 꿀이 마히 심어들어서 달게 댔다. 떠거리는 꿀 묻은 보리떡을 뜯어묵으이 참 히한 하기 맛이 있었다.

이렇게 꿀장수를 속여 얻어낸 꿀떡을 들고 지나가다가 중을 만나 상전이 자기의 등에 쓴 편지를 고쳐주면 꿀떡을 주겠다고 협상을 한다. 중이 부탁한 대로 해주고 떡을 먹은 뒤 그 꿀떡이 하도 맛있어서 어떻게 만들었냐고 묻는다. 방학중이 “이거는 부체곰이라는 거인데 절에 있는 부체를 때리부서서 가마솥에다 열서 한 열흘 곰면 된다”고 대답한다. 중은 방학중이 가르쳐준 대로 해보지만 ‘부체곰’이 되기는커녕 절이 망하고 만다. 이어서 어떤 양반을 만나는데 그 양반도 꿀떡을 먹어보고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 한다. 이번에는 방학중이 ‘신주뽕’이라고 하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신주를 부수어서 가마솥에서 열흘 동안 삶으라고 한다. 양반이 중과 마찬가지로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하다가 결국 집안이 망하게 된다.

꿀장수를 속여서 꿀떡을 만든 삽화는 대단한 속임수가 아니다. 방학중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지만 꿀장수는 별로 피해를 입지 않고 심지어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체곰’이나 ‘신주뽕’ 속임수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먼저 눈에 띄는 사실은 방학중이 먼저 상대방에게 접근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은 등에 쓰인 편지를 고치기 위해 접근한 것이지만 양반의 경우에는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그냥 접근한 것이다. 방학중이 왜 땅에 누워있냐고 물으니까 양반이 배고파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대답해서 방학중이 먼저 꿀떡을 건네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방학중은 선심을 쓴 것인가? 그럴 리가 없다.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관심을 끄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방학중의 목표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앞에서 본 상전을 굶리는 이야기든 떡보리를 훔치는 삽화든 무엇인가 얻게 되는 것이 있다. 물론 상전을 속일 때에 양반을 깎아내리는 효과도 있지만, 음식, 술, 돈, 그리고 처를 얻는다. 그러나 ‘부체곰’이나 ‘신주뽕’ 사건은 이득이 하나

도 없고 그저 상대방이 망하기만 한다. 심지어 방학중이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재미조차 누리지 못한다. 그렇다면 방학중의 의도가 무엇일까. 다른 각면에서도 이야기가 비슷하게 전개되는데 중과 양반 이외에 상주³¹⁾와 옹기(혹은 사기)장수³²⁾도 등장한다. 상주의 경우에는 재료가 상주가 입는 옷과 짝는 지팡이이고 옹기장수의 경우에는 재료가 옹기이다. 중, 양반, 상주, 옹기장수 중에 옹기장수만 특별한 사회적 지위가 없는 인물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옹기장수는 방학중이 즐겨 노리는 표적이라서 등장하는 것 같고 대부분의 표적은 앞의 세 명이라서 그들부터 살펴보면 될 것 같다.

이 삽화는 모두 마지막에 상대방이 ‘망한다’는 것으로 끝난다. ‘亡한다’는 말의 의미가 광범위하지만 여기서 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즉, 어떤 사업에 실패하거나 재정적으로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제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불상이 없어도 중 행세를 하고 동냥을 하러 돌아다닐 수도 있겠지만 자기 절에 있는 모든 부처를 부수어버린 사람이 스스로 스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스님이 만들어야 할 대상은 바로 부처인데 말이다. 양반도 마찬가지이다. 땅이나 돈이 있더라도 조상의 혼을 구체화한 신주를 없애는 것은 집안 내력에 등을 돌린 것과 다름이 없고 스스로 양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셈이다. 상주는 중이나 양반과 달리 일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특별한 위치에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남 앞에서 상주 행세를 할 수 있고 남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상주옷이나 지팡이와 같은 상징물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옹기장수나 사기장수는 이런 인물과 전혀 다른 사회적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그 원리는 같다. 즉, 옹기가 없는 옹기장수도 있을 수 없고 사기가 없는 사기장수도 있을 수 없다. 요컨대 방학중은 상대방을 단순히 망신을 시키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체성 그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다. 상전을 품리는 설화에서 빈부귀천의 범주를 무시하듯이 여기서는 방학중이 사회구조를 부정한다고 할 수 있다. 역시 경계적인 인물로서 사회구조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계적인 인물은 원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나 상징이 모두

31) 『대계』 7-7, 422~477면.

32) 『구전』 12, 49~50면.

결여된 인물이므로 방학중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구조를 조금씩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5. 말장난의 달인 방학중

방학중은 높은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자기 몫을 챙기거나 남이 망하게 하는 속임수만 구사하는 인물이 아니다. 보다 가벼운 말장난도 하는데 이것 역시 방학중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요소다. 이러한 이야기로는 '하던 방석'과 관련된 말장난이 대표적이다.³³⁾ 방학중은 일행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나무 밑에서 바느질하는 여자를 보고 동침하고 오겠다며 일행과 내기를 한다. 일행들은 모르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내기에 응하고 방학중은 여자에게 접근해 말을 건다.

“이걸 여기 말로는 머라 키는 가요?”

묻그던. 가외로(가위를).

“여 가외라 갑니다.”

“그래요? 우리 곳은 이걸 씹씨개라 합니다.”

방석을 깔고 앉았는데, 방석을 이래 만제보다,

“이거는 어깨 이름을 머라 갑니까?”

“이걸 방석이라 갑니다.”

“그래요? 우리 곳은(곳은) 이걸가주 방석이라 안카고 하던 방석이라 갑니다.”

이래니,

“그렇습니까?”

그래. 이놈이 올 때는 방석 밑에가 가위를 띄 여농골라, 딱 여농고 그래 왔뿐다. 눅었다가 오는데, 멀리서 보이 우웠는지 모르지. 그래, 이 부녀가 가위를

33) 『대계』 : 7-6, 401~402면; 7-7, 35~39면; 7-7, 65면; 7-7, 530~531면; 7-7, 549~551면; 7-7, 553~556면; 7-7, 588~589면; 7-7, 742~744면.

내가 끊을라고 보이 가외가 없다 이계라. 그 방학중이 가는 걸,
 “여보! 여보!”
 불러. 그래 쫓아가,
 “왜 그래십니까?”
 카이,
 “그 썩썩개 우웠소? 썩썩개 우웠소?”
 “썩썩개는 하던 망석 밑에 안있소.”
 이래이께, 아 저 선비들 보기에는 확실히 그렇다.³⁴⁾

위와 같이 방학중은 사물의 명칭을 바꿈으로써 마치 동침을 한 것처럼 여자가 말을 하도록 유도하여 일행을 속인다. 어떤 각편³⁵⁾에서는 여기에서 나아가 여자가 이름을 물어볼 때에 ‘내’씨라는 성만 알려줘서 여자가 방학중을 부를 때에 ‘내 서방’이라고 부르게 한다. 물론 방학중만 이런 장난을 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의 명칭을 바꾸는 것을 소재로 하는 세계 설화 중에는 위에서 살펴보았던 필리핀 트릭스터 포송의 이야기도 있다. 포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술탄의 왕비들과 동침하게 된다.

어느 날 포송이 술탄이 배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술탄은 망치를 집에 두고 왔다. 포송은 이전에 술탄에게 자신의 이름을 “성교(Sexual Intercourse)”라고 알려 주었다. 술탄은 포송에게 “성교, 내 집에 가서 망치를 가져 오거라.”라고 명했다. 포송은 술탄의 집으로 달려가 술탄의 일곱 부인들에게 가서 “술탄이 그의 아내 일곱 명과 모두 성교를 하라고 제게 명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술탄의 부인들은 그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때 술탄이 “성교, 빨리!” 하고 외쳤다. 이에 포송은 “그것 보십시오. 술탄의 말씀들을 들으셨지요?”라고 했다. 그러자 술탄의 부인들은 그를 허락했고, 포송은 그들과 성교를 했다. 포송은 그리고 나서 술탄의 집을 빠져 나와 숨었다.³⁶⁾

34) 『대계』 7-7, 743~744면.

35) 『대계』 7-7, 553~556면.

36) Nimmo, *op cit.*, p. 188.

물론 두 설화는 같은 유형의 이야기가 아니다. 포송은 실제로 여자와 동침하기 위해서 남자에게 일부러 말을 틀리게 가르치지만 방학중은 내기에 이기기 위해서 여자에게 말을 일부러 틀리게 가르친다. 또한 두 인물이 이용한 원리는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틀리게 가르쳐 준 말의 성격이 다르다. 포송의 경우 이름을 바꾸는데, 자신의 이름을 마음대로 정해서 남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 방학중도 자신을 ‘내 서방’이라고 부르게 만드는 각편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설화의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다. 방학중은 단순히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말장난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호학의 아버지인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가 논한 언어의 자의성 때문이다.³⁷⁾ 다시 말하면 언어에서 어떤 개념(기의; *signifié*)이 어떤 단어(기표; *signifiant*)와 연결되지만 그 둘 사이에 내재된 관계가 없고 다만 자의적인 관계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의 사투리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더하면 방학중의 책략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상대방이 사용하는 상징체계(즉, 언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바느질하는 여자는 방학중이 새로운 단어를 선의로 가르쳐준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사용한다. 이야기를 듣는 청자에게는 이것이 좀 우스울 수도 있지만,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므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웬만하면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 예사인데, 방학중은 그런 기대와 노력을 이용하여 의사소통 과정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조작한다.

이렇게 복잡한 말장난이 아니더라도 방학중은 우스갯소리를 잘 한다.

또 한 군데를 인제 저, 방학중이 물로 건네는데, 냇물로 건네는데 저 방학중이가 건네 오그던.

"여보, 그 물이가 깊읍디까 나비까(얕읍디까)?"

이래이께네—

37) Ferdinand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yot, 1975, pp. 97-103 참조.

[신경질적으로] "야, 이 양반아! 내 건넌 물은 하마 저- 알로 내려갔는데 무진[무슨] 필요가 있어 내있는 데 묻노?"

이래드라누만.

그렇게 어긋나게 하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다 카는게라.³⁸⁾

구연자가 말한 것처럼 방학중은 질문하는 자가 뜻하는 바와 어긋난 대답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일리가 없는 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냇물을 건너도 물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보통 사람은 질문하는 자의 말뜻을 알아듣겠지만 바로 그것이 요점이다. 방학중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위와 같이 상대방을 가볍게 놀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난장판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길을 가다가 똥이 마려운데 어쩔 수 없이 공공장소에서 똥을 누게 된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똥을 치라”고 하는데 방학중이 막대기를 가지고 똥을 막 쳐서 사방으로 튀게 한다.³⁹⁾ 여기에 어떤 깊은 지혜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엉뚱할 정도로 보통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

또한 말장난 중에 자기 집의 벽에 청룡황룡 그림이 있다고 속이는 이야기도 있다. 그냥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도 있고⁴⁰⁾ 자신이 부자인 것처럼 기생을 속여서 집으로 데려가는 이야기도 있다.⁴¹⁾ 심지어 부인을 얻는 수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⁴²⁾ 물론 집에 청룡황룡 그림이 있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이고 소위 그림이라고 한 것은 비가 새서 물이 벽을 타고 고붙고붙 흘러내렸던 자국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앞서 본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엉뚱하게 다르게 보는 것이지만 이번엔 그 현실이 방학중 자신의 형편이다. 물론 말장난 혹은 속임수이기도 하지만, 또한 상대방이 방학중의 집에 오면 뻔히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이지만 방학중은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사는 형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러한 맥락

38) 『대계』 7-7, 534면.

39) 『대계』 7-6, 400~401면; 7-6, 598~600면; 7-7, 373~374면; 7-7, 719~720면.

40) 『대계』 7-7, 489~490면; 7-7, 551면.

41) 『대계』 7-7, 369~370면; 7-7, 532~533면.

42) 『대계』 7-7, 724~728면.

에서 함께 살펴볼 만한 이야기가 겨울에 삼베옷을 입는 설화이다. 한 각편을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명주옷을 입고 벌벌 떨고 있으니, 벌벌 떠니까 말이야,

“그래, 왜 그래 떠노?”

이래이께네,

“추워서 떠다꼬.”

“아, 우리 맨치리(모양으로) 이거 삼베옷을 입고 있으면, 바람이 걷지내가가 (건성으로 지나가서) 하나도 안춥다꼬.”

그래 옷을 바짜(바꾸어) 입드랴오.⁴³⁾

얼핏 보면 방학중이 어이없는 피로 상대방을 속여 명주옷을 얻어 입게 된다는 평범한 속임수 이야기 같지만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각편⁴⁴⁾에는 상대 방과 옷을 바꾸어 입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 또한 방학중이 명주옷을 입은 사람을 먼저 관찰하고 명주옷을 얻어 입기 위해 추운 겨울 날씨에 삼베옷으로 갈아입은 것도 아니다. 방학중은 애초에 추운 날 삼베옷을 입은 채 추위에 떨지도 않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명주옷을 입은 사람과 마주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연자들은 방학중의 태도와 말 그 자체에 집중했던 것 같다.

방학중이 남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왜 하필 한 겨울에 얇은 삼베옷을 입었을까? 간단히 말하자면 입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가난해서 따뜻한 옷을 사 입을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추운 날씨에 왜 삼베옷을 입었냐는 질문에 우스갯소리로 넘기는 것은 그 처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 나온 행위라고 할 수도 있다. 역시 자존심이 대단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는 방학중의 말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 그는 멸시받기 싫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의 현실을 긍정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바로 달라진 현실인식이다.

43) 『대계』 7-7, 414면.

44) 『대계』 : 7-7, 34면; 7-7, 529~530면; 7-7, 552면; 7-7, 596~597면.

즉, 보통 사람들의 현실인식을 버리고 자신만의 인식을 갖는 것이다. 신동훈은 이것을 “현실로부터의 희극적 초월”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러한 희극적 초월이란 현실을 구성하는 요소들, 특히 인간행위의 논리적이고 긴밀한 상호 연결에 의해 성취된다기보다 오히려 그러한 현실의 논리적 관계를 무시하고 세계를 이질적으로 새롭게 구현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성취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⁴⁵⁾ 방학중은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바로 언어란 인간의 사고를 표현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사고를 형성시키는 수단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를 바꿀 수 있다면 세상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언어의 힘을 절대적으로 믿어왔다. 기독교 성서에서는 신이 말로써 천지를 창조했고 원시 주술에서도 말의 힘을 경외했다. 오늘날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표현이 그 믿음을 고스란히 지키고 있다. 방학중은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며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려는 인물이다.

이러한 초월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역시 방학중의 경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언어’와 ‘의사소통’이라는 틀에 박혀 있지만 방학중은 이것들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사회의 구성물(social construct)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즉, 방학중은 의미와 사고의 경계에 서서 다방면의 가능성을 한 눈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러한 경계에서 재빠르게 움직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언어를 이용할 수 있는 인물이다.

6. 방학중은 과연 어떤 영웅인가?

위에서 살펴본 설화가 증명하듯이 방학중은 전통적인 영웅으로 인식되어 오지 않았다. 앞에서 제시한 영웅의 정의에 비춰볼 때 놀랄 것도 없다. 물론 지위가 높은 사람을 속이고 깎아내리는 대목을 보면 서민의 대리모 보는 것이 그럴듯할 수도 있지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절름발이 혹은

45) 신동훈, 『신분갈등 설화의 상황설정과 문제해결 방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85면.

장님과 같이 불쌍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책략을 쓰거나 떡이 탐나서 순수함의 상징인 아기를 위협에 빠뜨리고 아무런 죄가 없는 행인을 유인해서 망하게 하는 장면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방학중을 악당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금물이다. 현대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방학중은 그야말로 기회 균등 트릭스터라고 할 수 있다. 고용자가 성별, 인종 등과 같은 것을 무시해야 하듯이 방학중도 경계적인 인물로서 사회적 범주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전을 속여서 먹을 것을 얻든지 아기를 업고 일하는 여자를 속여서 먹을 것을 얻든지 방학중의 눈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전통적인 영웅도 아니지만 악당도 아니다.

악당도 아니면서 전통적인 영웅도 아닌 인물이 있는데 흔히 ' 반영웅'이라고 불린다. 프라이(Northrop Frye)는 주인공의 행동능력(power of action)을 기준으로 서사양식을 범주화했다.⁴⁶⁾ 다섯 가지의 서사양식 중에 마지막인 아이러니 양식(ironic mode)은 방학중과 같은 인물에 해당되는 듯하다. 이런 양식에서 흔히 “주인공은 작품 속의 사회의 입장에서는 바보, 혹은 그 이하로 여겨지지만 실제 청중에게는 그 사회가 가진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⁴⁷⁾ 자우스(Jauss)와 베넷(Bennett)은 프라이의 유형론을 빌려 주인공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보다 청자가 주인공과 어떤 식으로 동질감을 가지느냐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면서 아이러니적 동질화(ironic identification)는 ‘ 반영웅(antihero)’의 영역이며 “미적 동질화의 모든 가능성에 있어서는 규범을 깨뜨리는 탁월한 기능을 지닌다.”고 했다.⁴⁸⁾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반영웅이란 사회 규범을 깨뜨리는 아이러니적 영웅인데 작품 속의 사회에서는 무시를 당하지만 작품 외적 청자에게는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인물이다.

전통적인 영웅은 집단을 위해 싸워 그 집단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것은

46) Northrop Frye, "Historical Criticism Theory of Modes,"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pp. 33-67.

47) *Ibid.*, p. 48.

48) Hans Robert Jauss, Benjamin Bennett and Helga Bennett, "Levels of Identification of Hero and Audience," *New Literary History* 5/2, 1974, pp. 283-317.

사회구조를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방학중과 같은 반응은 사회구조를 옹호하기는커녕 인정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전통적 영웅과 반대되는 과제를 스스로 도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끌릴 때에는 귀천의 구별을 개념치 않고 ‘부체공’이나 ‘신주뿔’ 설화에서는 그런 사회구조를 한 조각이나마 무너뜨리려고 한다. 물론 이런 인물을 가리킬 때에 ‘파괴의 영웅’과 같은 표현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피하고자 한다. 방학중은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엇을 긍정하느냐는 것이 문제이다.

여기서 5장에서 본 말장난 삽화들이 방학중의 성격의 이러한 면모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듯하다. 보통 사람들은 사회구조를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듯이 언어에 기반을 둔 사고체계도 좁다. 그러나 방학중은 보다 넓은 세상을 보고 있다. 시냇물이 흘러서 늘 변하고 있다는 진실을 우스꽝스러운 말 속에서 숨겨놓는다. 우리가 개념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자의적인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긍정적인 언어와 그 언어의 바탕이 되는 사고로 초월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방학중은 사회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질서란 한 가지의 가능성 밖에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에는 무질서란 무한한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혼란이나 혼동이라고 하면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사회구조의 입장에서 보는 생각이다. 방학중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 무한한 가능성 중에 하나의 가능성을 구체화한 것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중세의 질서가 물러나고 근대의 질서가 들어올 때가 된 조선후기에 필요한 인물은 전통적인 영웅이 아니라 방학중과 같은 반응, 즉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인물이다. 임재해가 지적했듯이 “건달형 인물이야말로 중세를 무너뜨리고 근대로 나아가도록 힘을 보태는 진정한 역사적 실천의 인물”인 것이다.⁴⁹⁾ 전통적인 영웅은 사회 질서를 옹호하므로 사회구조에 속해야 되지만 반응은 사회구조에 속하면 제대로 활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경계에 서 있는 트리스터 방학중이 반응의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방학중은 중세를 질서를

49) 임재해, 앞의 논문, 257면.

무너뜨리는 데에는 기여하지만 근대의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는 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질서를 세우는 것은 다른 인물이 맡아야 했다. 방학중은 경계에서 기다리면서 활약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근대에 들어와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방학중은 다시 나타나 우리가 당장 볼 수 없어도 새로운 가능성의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준비가 지금도 되어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金善豊, 『韓國口碑文學大系』 2-3 : 江原道 三陟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12권, 평민사, 1993.
- 林在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9 : 慶尙北道 安東市·安東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 林在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10 : 慶尙北道 奉化郡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 趙東一 ; 林在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6 : 慶尙北道 盈德郡篇(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 趙東一 ; 林在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7 : 慶尙北道 盈德郡篇(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 Barbeau, C. Marius, 'Le Conte de Pois-Verts,' "Contes Populaires Canadien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29(111), 1916, pp. 1-136 + 153-154.
- Erdoes, Richard and Alfonso Ortiz, *American Indian Trickster Tales*, Penguin Books, 1998.
- Nimmo, H. Arlo, "Posong, Trickster of Sulu," *Western Folklore* 29(3), 1970.
- Speck, Frank G., "Malecite Tale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30(118), 1917.

2. 단행본

-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 趙東一, 『人物傳說의 意味와 機能』,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9.
- Brown, Norman, *Hermes the Thief*, Lindisfarne Press, 1990.
- Frye, Northrop,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Harper, Douglas, *Online Etymology Dictionary*,
<<http://www.etymonline.com/>>
- Raglan, Baron Fitzroy Richard Somerset IV, *The Hero: A Study in Tradition, Myth, and Drama*, Pitman Publishing, Ltd., 1936.
- Saussure, Ferdinand,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yot, 1975.

3. 논문

- 김현선, 「건달형 인물이야기의 존재 양상과 의미」, 『京畿語文學』 8, 1990, 98~157면.
- 나수호,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 방학중·정만서·김선달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259면.
- 신동훈, 『신분갈등 설화의 상황설정과 문제해결 방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1~122면.
- 임재해, 「건달형 인물전설의 어긋난 행위에 갈무리된 근대성 읽기」, 『韓民族語文學』 53, 2008, 209~270면.
- 曹喜雄, 「트릭스터(Trickster)譚 研究」, 『語文學論叢』 6, 國民大語文學研究所, 1987, 85~94면.
- 崔元植, 「鳳伊型 건달의 文學史的 意義 - 피카레스크의 可能性」, 『李朝後期 漢文學의 再照明』, 창작과 비평사, 1983, 322~350면.
- Jauss, Hans Robert, Benjamin Bennett and Helga Bennett, "Levels of Identification of Hero and Audience," *New Literary History* 5/2, 1974, pp. 283-317.

An Inquiry Into the Heroic Nature of Bang Hakjung

Charles La Shure

Bang Hakjung, a popular figure in Korean folk tales, is called by many names. He is known as a rogue and a scamp, and also more recently as a trickster figure. Due to his fondness for deceiving those above him on the social ladder and knocking them down a few rungs, he may appear to be a hero of the downtrodden as well. It is the goal of this paper to determine just what sort of hero Bang Hakjung really is. A "hero," as the idea is traditionally understood, is one who performs great deeds with exceptional skills and abilities, and who is recognized for these deeds by society at large. A look at some folktales regarding Bang Hakjung's birth shows that the tellers of these tales consider him an extraordinary individual, one destined for great things, but his life does not follow the path to greatness. An examination of other tales will show how fitting the title of hero is for Bang Hakjung.

In the tales where Bang Hakjung deceives and humiliates his master, he would indeed seem to be a hero of the little people, yet he deceives not only his master but pitiable and sympathetic figures such as blind and lame men—and these to their deaths! In the tales that deal with Bang Hakjung's theft of a sticky barley cake, he places an innocent child in danger and brings about the downfall of passersby whose only sin is to ask Bang Hakjung how he came to possess such a delicious treat. There are many other tales in which he plays with language, either communicating his message in such a way to cause the listener to misunderstand, or deliberately misunderstanding a message communicated to him in good faith. What all of these tales have in common is that they are expressions of Bang Hakjung's liminal nature. Being a liminal figure, he is free from the constraints of society's norms and conventions, allowing him to attack the social structure at will.

The hero is one who rather protects the social structure, so it is clear that Bang

Hakjung is far from being a hero in the traditional sense. Instead he is a hero in Northrop Frye's ironic mode: an antihero. Unlike the hero, the antihero seeks out the cracks in the social structure and takes advantage of them in an attempt to bring that structure down. Because he stands on the limen, on the border, he is able to see possibilities beyond the existing order, and from that limen he can launch his attacks. Just when we become comfortable with the status quo, antiheroes like Bang Hakjung will appear to open our eyes to the limitless possibilities beyond our sight.

Keywords: Bang Hakjung, hero, antihero, liminal, trickster

접수일자: 2013. 8. 31 심사기간: 2013. 8. 31~2013. 11. 20 게재결정: 2013. 11. 20
